

## 제주마의 본향

제주에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말이 나던 곳이었다. 제주에서 말을 가장 잘 키운 인물로는 김만일을 꼽을 수 있다. 제주 사람으로는 가장 높은 벼슬을 받고, 집안 대대로 벼슬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김만일은 제주마와 관련해 상징적인 인물이다.



**한신로**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759-1 ~ 남원읍 신흥리 1590-19(약 5.6km)

**원님로** |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849-1 ~ 표선면 가시리 2527(약 7.4km)

**서의로**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015-1 ~ 남원읍 의귀리 1402-1(약 2.5km)

## 한신로 | 현마공신 김만일



의귀리

제주의 남동쪽 한남리와 신흥2리를 연결하는 도로인 **한신로**는 의귀리를 가로지른다. 의귀리에 들어서면 제주마의 본향이라는 돌비석이 눈에 들어온다. 이것은 제주에서 말하면 생각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자, 말을 잘 키우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현마공신 김만일이 태어난 마을이기 때문이다. 의귀리라는 마을의 이름도 김만일이 말을 바쳐 어의 한 벌을 받은데서 ‘웃귀’라고 부르다 그것이 의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것을 보면 의귀리는 김만일과 인연이 깊은 마을이다.

김만일은 우리나라 최대의 말 생산지였던 제주에서도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말을 키웠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남원읍 일대에 넓은 목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1만여 필에 이르는 말들을 키웠다고 한다. 개인목장으로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만일은 말을 다루는 능력도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유배인 이진이 쓴 <제주풍토기>에 보면 당시에 3읍의 수령들이 진상품을 걷는 것을 빙자해서 좋은 말들을 모두 징발해버리곤 했는데 김만일은 이렇게 좋은 말을 빼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말은 일부러 눈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가죽이나 귀를 찢어서 보기 좋지 않게 만들어 징발을 피했다고 한다. 그 덕분에 좋은 말들을 계속 생산할 수 있었다. 그래서 김만일 목장의 말들은 왕이 타는 말이나, 나라의 좋은 말들을 그가 기른 말들 중에 골랐다고 하고, 명나라에 진상마로도 보내졌다고 한다.

김만일은 나라에 말을 많이 바친 것으로도 유명했다.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쟁에 사용할 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자 김만일은 자신이 키우던 말들을 군마에 사용하라고 진상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약 1300마리 이상의 말을 바쳤다. 그 공을 인정받아 김만일은 종1품 승정대부라는 벼슬을 제수받았다. 지금으로치면 부총리 급이라고 하는데 제주출신으로는 가장 높은 벼슬이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산마장(山馬場)의 감목관이란 직책을 김만일 집안에서 세습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약 210여년간 83명에 이르는 그의 집안 사람들이 산마감목관을 지냈다. 김만일의 딸은 제주에 유배왔던 간옹 이익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로써 김만일 가문은 대대로 세습되는 관직과 중앙의 인맥까지 갖게 되면서 제주의 명문집안으로 오래도록 위세를 떨쳤다.

## 원님로 | 원님의 순력로

의귀리에서 가시리까지 이어지는 **원님로**는 옛날 정의현감이 순력할 때 왕래하던 길을 의미한다. 의귀리는 정의현에 속하는 마을이었다. 정의현의 현감은 지금의 성산읍 시흥리에서 서귀포 시내의 법환동까지를 다스렸다. 현감은 자신이 다스리던 정의현을 직접 둘러 보기도 했는데 그 때 이용한 경로가 원님로가 지나는 곳과 비슷하다. 제주목사의 순력 때도 이 길을 따랐다. 제주목사를 지낸 이익태가 남긴 <지영록>에 보면 목사로 부임해서 제주를 둘러보는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관아를 출발하여 동쪽으로 출발한 목사 일행은 조천관을 들리고, 별방소(하도리)를 거쳐 정의현으로 들어온다. 정의현 내에서는 수산소에 들렀다가 성산일출봉을 올라 주위를 살피고, 정의현청이 있는 성읍에 도착하여 향교에 들렀다. 그리고 나서 의귀리를 거쳐 효돈을 지나, 서귀포에 도착하여 천지연폭포에서 활쏘기를 즐겼다. 그 후에는 대정현으로 넘어가 서쪽 지역을 둘러보았다. 이형상 목사가 순력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 <탐라순력도>에도 위와 같은 이동 경로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목사의 순력은 제주의 방어태세를 점검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오늘날 의귀리에는 남조로와 중산간도로와 같이 비교적 큰 도로들이 통과하는데 옛날에 원님이 지나던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 濟州馬本郷

### 서의로 | 날개 달린 장수

의귀교차로에서 갈라지는 **서의로**는 옛 지역명인 서의귀를 의미하는 이름이다. **서의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녃 나간 소의 형상’이라는 뜻에서 녃시오름이라 불리는 오름을 볼 수 있다. 이 오름에는 날개 달린 한 장수가 관군에 쫓기다가 오름의 정상에 밟았더니 오름의 녃이 나가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제주에 전해오는 설화에는 뜻을 펼치지 못하고 죽은 날개 달린 장수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장수들은 대부분 날개가 달렸다는 이유로 훗날 역적이 될 것을 두려워한 부모가 날개를 없애버리거나, 관아에 잡혀가 죽음에 이른다. 또는 먹성이 좋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죽는 경우도 있다. 제주에서도 큰 인물이 나기를 바랐던 제주 사람들의 염원이 장수 설화들에 반영되어 구전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마공신 김만일은 비록 명예직이긴 했지만 높은 벼슬을 하사받을 정도로 제주에서는 큰 인물이었다. 그래서 의귀리에서는 마을의 자랑으로 김만일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